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nual Report 201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73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4억 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협력기구입니다.

Contents

메시지 | 5

연합의 주요활동 | 9

- I.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10
- II. 2015 NEAR 국제포럼 13
- III. 분과위원회 16
- IV. 제10회 실무자 Workshop 21
- V. 제3회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 및
NEAR 청년인턴교류 프로그램 23

2015 행사일정 | 25

대외협력 네트워킹 | 29

연합기반강화 | 37

사무국 소개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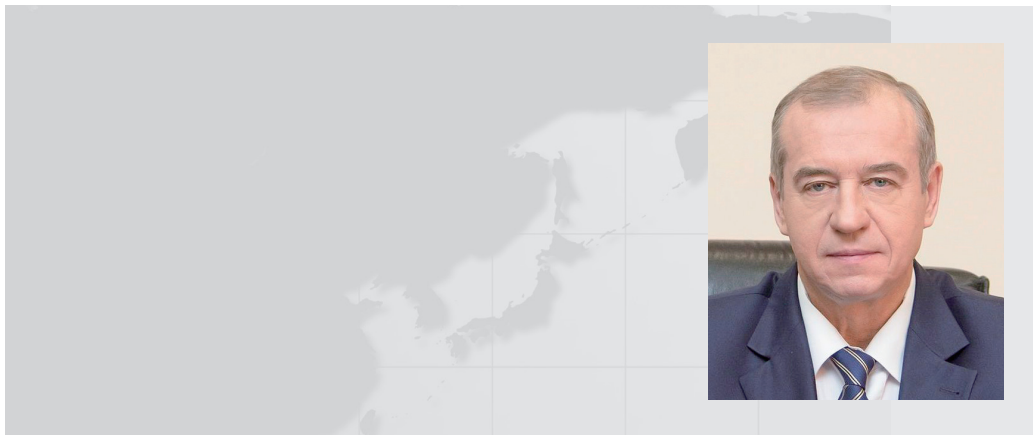
부록 | 45

A dimly lit conference room with people seated at tables, facing a screen. The room has a modern design with large windows and a high ceiling. The people are mostly men, some wearing suits, and are looking towards the front of the room. There are water bottles on the tables.

메시지

Message

Message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 여러분!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연합 회원국들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2015년 NEAR 의장단체인 이르쿠츠크주는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큰 영광과 책임이 따르는 NEAR실무위원회 행사 개최는 우리 주의 임무였습니다.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NEAR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이르쿠츠크주는 변함없이 NEAR의 의장단체로서 활동을 이어가며 제11차 NEAR 총회 참석자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더욱이 2016년은 NEAR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르쿠츠크주는 1996년 연합 창설멤버로 연합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NEAR의 회원단체라면 누구나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산업, 과학, 문화, 관광, 의료 등 경제무역 및 인문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친애하는 친구 및 동료 여러분! 2015년 한 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어 기쁘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는 NEAR의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성과와 흥미로운 프로젝트 개발, 공동의 결실을 맺는 효과적인 업무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2015. 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장 / 러시아연방 이르쿠츠크주지사 **세르게이 레프첸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과 회원단체의 발전을 위해 수고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창설 20주년이 되는 2016년은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NEAR가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통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정치, 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블록화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NEAR는 2015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통하여 지역 국가들 간 긴장관계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역내 지방정부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NEAR회원단체의 협조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COP21(파리당사국총회) 공동선언'을 위한 기후변화 설문에 참여하여 대외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교, 러시아 쓰이바국립대학 교와 NEAR간에 청년인턴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재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15년 10월 “제10차 NEAR실무위원회”가 의장단체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2016년에 개최될 총회를 대비한 의제 선정, 즉, 차기 의장단체 선정, 연합헌장 개정안 제안, NEAR회비제 도입을 위한 “회비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회원단체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서울특별시에서 “제7차 국제포럼”이 개최되어 “동북아시아의 재난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재난과 방재, 경제와 환경문제, 기후변화와 동북아시아 대응 등 ‘동북아시아의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단체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조화의 시대와 동북아에서 작은의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특강과 회비제 도입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실무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NEAR교류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활동으로는 경제인문, 농업, 방재, 교육문화교류, 환경, 해양어업 등 6개 분과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어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회원지방정부간의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동북아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환경문제”를 주제로 “제3회 ‘NEAR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 (NEAR Youth Essay Contest)”이 실시되어 청소년들에게 동북아시아와 NEAR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NEAR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은 현재까지 확대 실시되어 2015년에는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의 청소년 56명이 참여하여 NEAR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창립 20주년을 맞아 NEAR사무국은 회원지방정부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원확대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지원함으로써 회원지방정부들에게 더 유익하고 내실 있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전 재 원**

연합의 주요활동

Main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참여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I.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1. 행사개요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NEAR 의장단체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는 중국 5개 단체, 일본 3개 단체, 한국 7개 단체, 몽골 5개 단체, 러시아 1개 단체 등 총 24개 회원 및 옵저버 단체와 유관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 주요내용

10월 14일 개막식은 이르쿠츠크주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전재원 사무총장, 러시아 외교부 이르쿠츠크 대표부 및 이르쿠츠크 주재 중·한·몽 총영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0차 총회 결과 보고

전라남도 국제통상과 김홍사 사무관은 제10차 총회에서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하카시아 공화국의 신규회원가입, 연합현장 제10조제1항의 '실무위원회 개최주기' 변경 및 제12조 '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장기존속' 관련 조문개정,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 2016년 총회유치 의결과 NEAR 회비제 도입,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등 3건의 사무국 제안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NEAR 사무국 주요활동 보고

NEAR 사무국 차윤희 사무처장은 NEAR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각종 국제행사와 분과위원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석 및 지원하고 회원단체간 교류협력사업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총회, 실무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회비제 도입,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NEAR의 현안 사항을 논의해 나가는 한편 NEAR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회원단체들의 주요관심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화 함으로써 NEAR가 동북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주요의제

제10차 실무위원회에서는 4가지 의제가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18년 제12차 총회 유치신청
- 2) 연합헌장개정(준 회원제 도입, 총회 구성원의 구체적 명시, 의결 정족수 일부 조정)
- 3) 분과위원회 실태보고 및 개선방안
- 4) 회비제 운영(안) 제안



합의문 채택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합의문

2015년 10월 1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제10차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등 5개국 24개 회원단체, 옵저버단체 및 비회원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개막식에 이어, 제10차 총회결과보고, 사무국 주요활동보고, 6개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등 연합의 주요활동보고가 이루어졌고 NEAR 발전을 위한 제안과 회원단체의 정책 소개 등이 포함된 회원단체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8년 제12차 NEAR 총회 개최지 유치신청과 연합헌장개정, 분과위원회 운영실태 보고 및 개선방안 논의, 회비제 운영규정(안) 제안의 발표와 심의가 이루어졌다.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주요내용과 제11차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8년 총회 유치 신청

중화인민공화국 후난성은 2018년 제12차 NEAR총회를 유치하고자 신청했으며, 이에 참가한 회원단체들 간의 토의 결과 후난성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 합의하고 2016년 제11차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였다.

2. 연합헌장 개정 제안

NEAR 사무국은 연합의 확대를 목적으로 연합헌장 제4조의(준회원 범위)을 신설하고, 제6조(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회원자치단체의 대표”에서 “회원자치단체의 장”으로 개정하며, 제9조(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회원단체에서 준 회원제와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 다른 의견도 있었다. 추후 회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제11차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였다.

3. 분과위원회 운영실태 보고 및 개선방안 논의

사무국은 연합의 14개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장기간 개최되지 않고 있는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공동개최, 지위이양 또는 폐지 등에 대한 방안을 사무국이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4. NEAR 회비제 운영 규정(안) 제안

2014년 제10차 전라남도 총회에서 제안된 회비제 도입 제안의 후속 조치로써 회비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NEAR 사무국에서 NEAR 회비제 운영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 운영 규정(안)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회비제 규정(안)은 회비제 도입과 더불어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제11차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였다.

3. 부대행사

본 행사 다음 날인 10월 15일 행사참가자들은 민속박물관과 바이칼 호수 등을 시찰하며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자연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동북아시아의 재난과 거버넌스 구축

II. 2015 NEAR 국제포럼

1. 행사개요

2015 NEAR 국제포럼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동북아시아의 재난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4개 단체, 일본 4개 단체, 한국 8개 단체, 몽골 8개 단체, 러시아 1개 단체 등 총 5개국 25개의 NEAR 회원과 옵저버 단체를 비롯하여 주한 외교관, 국내외의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각 회원단체와 국내외의 재난안전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동북아지역의 주요관심사항인 재난과 안전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2. 주요내용

11월 19일 국제포럼의 개막식은 전재원 사무총장의 개회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와 정병윤 경상북도 부지사의 축사,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의 기조연설,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슈나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소장의 특별연설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뒤이은 3개 세션에서는 ‘재난과 방재’, ‘경제와 월경성 환경문제’, ‘재난과 협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프닝 세션

전재원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지역의 한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주변에 위치한 어느 국가도 그 영향

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재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협력방안을 찾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는 자연재해에 더하여 정부의 잘못된 시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북한의 기아와 난민문제를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탈정치의 맥락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슈나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소장은 특별연설에서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초국경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역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1세션

제1세션은 고려대 김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일본의 재난과 이에 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재난예측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방식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 대응 행동지원을 보다 신속히 할 것을 역설했고 동북아시아 재난의 속성과 피해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업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쓰바라 코지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부 센터장은 한신 아와지 지진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마련된 일본 효고현의 방재체계를 중심으로 발표 하면서 초기체제의 정비, 24시간 감시체제의 운영, 대피숙소의 정비 등의 시책을 소개하였다.

제2세션

제2세션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황해에서의 월경성 환경문제와 몽골의 이상 한파가 일으키는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장이항 UNDP/GEF YSLM Project 전 사무국장은 월경성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획량을 줄이고 해양생물의 복원을 추구하며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알탕바가나 몽골국립개발연구원 환경정책분과 소장은 몽골의 이상 한파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가축폐사, 빈곤, 인구이동, 실업 등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설명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다발 지역에는 그 지역에 특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3세션

제3세션은 권세은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자연재해와 기술적 재난’과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재난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논의의 주된 화두가 되었다. 바클라노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태평양지리연구소 소장은 동북아시아의 인적, 자연적 재해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에 대한 조약, 국제경보시스템, 국제환경 모니터 시스템, 국제보험기금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상태 그대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포괄적인 재난협력 거버넌스가 부재함을 언급하며 동북아시아국가들 특히, 한중일 3국이 협력을 통해 원전안전을 추구하고 몽골, 북한 등의 주변국가를 지원하며 재난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와 관행을 타파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

3. 부대행사

20일 오전에는 국제포럼행사에 참가한 회원단체대표들이 한국 서울특별시시에 위치한 경복궁을 방문하여 궁내 건축물을 관람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조선왕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경복궁 방문에 이어 남산골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였다.



상호 신뢰와 실질적 협력의 유용한 도구

III.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개요

1998년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비롯한 5개분과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15년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격년제로 운영되지만 일부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2013년도에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제2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가 올해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NEAR에서는 실무자워크숍에서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무자 간 토론을 통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운영이 부진한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통, 폐합 및 다른 회원단체에 이양하기를 결정하였으며, 코디네이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주요활동 분야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구성연도	개최횟수	주요활동 분야
경제인문	대한민국 경상북도	1998년	11회	통상촉진, 무역상담, 세미나 등
환 경	일본 토야마현	1998년	12회	표착물 조사, 환경심포지움 등
방 재	일본 효고현	1998년	13회	재해 피해예방, 방재능력 향상
변경협력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2005년	2회	금융, 운송, 세관 인프라 조성
교육문화교류	일본 시마네현	1998년	15회	인재육성, 문화교류 활성화 등
과학기술	대한민국 경기도	2007년	3회	과학기술교류 등
관 광	중국 허난성	2008년	2회	관광전시전 및 홍보, 협력모임
해양어업	중국 산둥성	2008년	4회	해양자원 이용 등
광물자원개발조정	러시아 마가단주	2010년	3회	광물자원 채굴과 가공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2010년	1회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체계 등
여성아동	몽골 도르노드아이막	2010년	1회	여성, 아동 관련 정보 교환 등
생명의료산업	대한민국 충청북도	2011년	1회	의료산업 교류 협력 등
농 업	대한민국 전라남도	2011년	2회	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체 육	러시아 사하공화국	2013년		체육관련 정보 및 교류

2. 2015년 분과위원회 개최

제13회 방재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효고현에서 중국, 한국, 몽골 3개국 19개의 회원단체 및 타 지자체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방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방재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간의 방재체제 강화와 회원단체 간 연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 회의내용

‘효고의 방재 대책’이라는 주제로 효고현 방재사업 담당자가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대한 개요를 비롯하여 복구 과정, 분야별 노력과 남겨진 과제에 대한 대응 및 향후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방재기관과의 의견교환시간에는 ADRC(아시아방재센터), IRP(국제방재부흥협력기구), JICA간사이가 참석하여 방재인적자원개발, 대재해를 통해 얻은 교훈, 방재 교육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각 회원단체의 방재 담당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효고현의 선진 시책을 공유하였다.

3) 부대행사

현지시찰로 참가자들은 ‘사람과 방재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지진재해(고베대지진, 동일본대지진) 현장 모습과 복구 현장 영상 시청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효고현 광역방재센터’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주는 방재 교훈에 관한 강연을 듣고 비축창고를 시찰하며 실제 재해 상황 등을 체험하였다.

제15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일본 시마네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 회의내용

일본 시마네현 환경생활부장의 환영사와 전재원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다문화이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간의 간단한 소개 및 인사시간을 가진 후, 1박2일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교류 활동이 있었다. 또한, 세계 공통과제인 ‘저출산 고령화’를 키워드로 국가별 사회구조,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서 접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도록 의견교환의 시간도 있었다.

제11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5개국 24개의 회원단체에서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분야뿐 아니라 인문분야에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회원단체간 문화융성과 지역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2) 회의내용

이번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는 주제연설, 참가단체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주제연설에서는 계명대학교 하영석 교수가 '동북아시아 경제물류교류 활성화'라는 주제로 한국 포항(영일만항) ~ 북한 나진 ~ 러시아 하신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물류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호열 본부장은 '동북아회원 단체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역내 교류협력체널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부 간 협력 채널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참가단체 사례발표로는 중국의 하이룽장성이 지역 특화 산업 및 투자환경을 소개하였고, 산둥성은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지역물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관광지 부활 사례인 이즈모 다마쓰쿠리 온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한국의 경상북도에서는 Handong-IFE Joint MBA과정 운영을 통한 한·몽 산학협력 사례와 포항항 현황 및 계획 설명을, 몽골 고비숨베르아이막에서는 경제 물류교류 활성화 방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는 '동북아의 하바지역 국가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3) 합의사항

경제와 인문 각 섹션 별 주제를 설정하여 단체별로 홍보 및 특산품 부스를 설치하고 회의기간 중 섹션 별 토론 및 의견교환을 통해 차년도 분과위원회에서 성과 및 결과발표를 하도록 합의하였다.

4) 부대행사

회의 후 참가자들은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실�크로드 경주 2015를 현지 시찰함으로써 실�크로드 국가 간 문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하였다.



제2회 농업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되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5개국 17단체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농업분과위원회는 세계적 기상이변 등 자연환경적 영향으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NEAR 대응방안 강구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농업관련 정보와 기술교류로 상호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2) 회의내용

국립 과학원 김석철 유기농업과장의 ‘한국 유기농업연구와 기술체계’라는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전남도 농업정책 과장의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계획 소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친환경 농업실천방안 연구 및 각국 회원단체별 사례발표가 있었다.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헤이룽장성 마령서 산업의 발전지속’이라는 주제로 중국농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령서 역병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고,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친환경 농업 추진이라는 주제로 시마네현에서는 환경을 배려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기농업 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몽골 셀렝가야이막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정책은 몽골 기후 특징과 날씨변동에 따라 곡식줄기를 덮어, 토양이 바람으로부터 날아가지 않게 하여, 토양에 하절기 강수량이 쌓이고 이를 통해 수확량을 높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는 2건의 발표를 하였는데, 첫번째 발표는 생물학 농업으로 유기광물비료 사용을 통한 토양 생산성 증가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다음으로 이토라는 유기비료를 통해 토양 개선 및 곡물 생산성이 증가현황을 발표하였다. 이후 참가단체 사례발표에서 전라남도의 유기농업 기능장인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은 몽골 회원단체에서 많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3) 부대행사

산업시찰에서는 미국종합처리장(RPC), 파프리카 농장 등을 견학하고, 현지 개최중인 ‘국제농업박람회’를 방문, 한국의 농업기술 및 농업관련 전시관을 시찰하였다.

제4회 해양어업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제4회 해양어업분과위원회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에서 중국, 한국, 몽골 3개국 5개 회원단체의 해양어업 관련 부서 공무원 및 산동 주재 한국, 일본 총영사관 대표, 한중 해양어업 관련 기업 대표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어업경제무역협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동북아시아 지역 회원단체 간 해양어업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과 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을 두고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2) 회의내용

10월 29일, 본회의에 앞서 전재원 사무총장은 자오룬텐(趙潤田) 산둥성 부성장을 면담하여 산둥성에서 NEAR에 보내준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열린 개막식은 장후이(張惠) 웨이하이시 시장 환영사, 전재원 사무총장, 주 칭다오 일본 총영사,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자오룬텐 산둥성 부성장 등의 축사, 중국해삼교역센터 현판식, 한중 해양어업 관련 기업 협력합의서 조인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 후, 산둥성 해양어업청 장칭춘(姜淸春) 부청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되었다. 왕쇼우신(王守信) 산둥성 해양어업청장은 “동북아시아어업경제무역 협력 강화 및 어업경제의 공동발전 촉진”을 주제로 어업의 중요성과 향후 동북아시아 간 해양어업분야의 협력강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위주로 기초연설을 하였다. 회원단체 대표로 박헌식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 주무관이 울산광역시 해양어업 발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Ajaajav Damdin 흙스후굴어아이막 항흥군 군수가 흙스굴호수 및 어류자원 등 자원현황, 향후 양식업 발전 및 친환경식품 개발 등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3) 합의사항

포럼 개막식에서 한중 해양어업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협력협약서 체결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분야에서 상호 간에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심도 있는 상호협력을 합의하였다.

4) 부대행사

본 행사 후 진행된 현지시찰을 통해 참가자들은 룡청시(榮城市) 해양식품전시센터, 산둥하오당자이(好當家) 그룹 해삼양식장을 시찰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해양어업산업을 경험하였다.

제12회 환경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11월 11일 일본 토야마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4개국 6개 회원단체 및 타 지자체에서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환경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 회의내용

환경분과위원회 회의는 환경분과위원회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출 협의를 시작으로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상황, 개별프로젝트 성과 및 실시상황이 보고되었다.

〈2015년 개별 프로젝트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

스기타 사토시 토야마현 환경정책과장이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제안 : 토야마현)과 관련해 사업 설명을 했다. 8월 19일~20일에 일본 토야마현 우오즈시에서 실시된 이 사업은 해안가 청소, 공예품 제작과 수족관 시찰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 현상과 보전활동을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두 번째로 도혜조 요시미즈 토야마현 환경보전과장의 ‘해변의 표착물 조사와 표착물아트 제작’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초·중·고등학교 및 민간단체의 협력 하에 해변 표착물을 주위 종류별로 분류하고 갯수 및 중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마음, 바다를 지키는 마음 등 공동체 의식을 양성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6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설명〉

지난 해에 이어 2016년에도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제안 : 연해변경주, 토야마현)’, ‘해변 표착물조사와 표착물아트 제작(제안 : 토야마현)’, ‘동북아시아지역 환경포스터전(제안 : 강원도)’은 계속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해양생물 조사(제안 : 토야마현, 연해변경주)’는 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바위주변이나 물가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지역 분포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파악할 예정이다.

새로운 비전제시, 그리고 도약을 위한 거점

IV. 제10회 실무자 Workshop

1. 행사개요

NEAR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숍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한국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6개 단체, 일본 3개 단체, 한국 12개 단체, 몽골 11개 단체, 러시아 3개 단체 등 총 5개국 36개 단체 83명이 참가하여 NEAR와 연합활동에 대한 이해증진과 회원단체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NEAR 사무국의 주요업무 현황보고, 고려대학교 손기영 교수의 특별강연, 회원단체 주요행사 소개와 함께 NEAR현안사항과 회비제 도입,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토의시간이 마련되어 연합의 주요 이슈에 관하여 회원단체 실무자들간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2. 주요활동

NEAR사무국 발표

NEAR사무국에서는 2014년 사업성과 및 2015년 운영방향과 중점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특히, 2015년 중점추진업무로 제10차 실무위원회 개최, NEAR 국제포럼 개최, NEAR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 시행, 제3회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설명하며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별강연

고려대학교 손기영 교수는 “조화의 시대와 동북아에서 축은의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손기영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은 과거의 역사문제, 영토문제로 인해 대결지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축은의 공동체”를 만들어 축은의 마음을 회복하고 상호의 관계에 의지하며,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조화의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원단체 발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닝샤 인환의 새로운 발전협력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산둥성에서는 10월에 개최하는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홍보를, 일본 토야마현에서는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다.

한국에서는 각 회원단체가 올해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와 국제행사를 홍보하였다. 대구광역시는 대구메디컬 클러스터 소개를, 대전광역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 소개를, 충청북도는 2015고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를, 전라남도는 2015국제농업박람회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홍보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제11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에 대해 소개하였다.

몽골에서는 회원단체 소개를 하였는데, 움노고비아이막에서는 움노고비아이막 소개를,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울란바타르시 현황을 알리며 참석한 회원단체에 홍보하였다. 의장단체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는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개최에 회원단체의 참여를 부탁하였고, 사하공화국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체육분과위원회에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회비제 도입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토의

〈회비제 도입〉

회비제 도입은 회원단체의 연합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국제기구로서 연합의 위상을 제고하며, 재정적 독립성이 강화되어 NEAR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수의 회원단체는 회비제 도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회원단체 의견조사 및 실무자 워크숍 토의과정에서 회비부과방식과 사용용도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회원단체와 분과위원회 확대에 따른 코디네이터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일기간 중복 개최를 최소화하여 회원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동이 저조한 분과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은 코디네이터 단체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무국에서 코디네이터 단체를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3. 부대행사

워크숍 참가자들은 회의 당일 세계 철강산업을 이끌어 온 한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를 방문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경주 토함산에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잘 알려진 석굴암과 불국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불교 문화를 체험하였다.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꿈 찾기

V. 제3회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 및 NEAR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

청소년 에세이

NEAR사무국에서는 회원단체간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회원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제3회 NEAR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했다. 올해는 '문화교류'와 '환경문제'에 관한 선택 주제로 중국 2편, 일본 6편, 한국 25편, 몽골 1편, 러시아 22편으로 총 56편이 제출되었으며, 일본 토야마현립 다이몬고등학교 스나고자가 쇼다이 학생에게 대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한국의 엄윤주, 중국의 왕뤄위, 일본의 소다 하즈키, 몽골의 빠상후 너밍 에르덴, 러시아의 아레피예바 아리나 학생에게 각각 우수상이 수여되었다. 2016년에는 NEAR창설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사무국에서는 청소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상 대상자(장례상)를 확대하고, 회원 단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NEAR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 추진



1. NEAR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 추진 배경

NEAR회원단체의 청년들이 타 회원단체의 기업 또는 기관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무국에서는 NEAR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하고 더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대학생의 참여가 줄어들고 해외회원단체 국가에서 대학생들의 방문을 꺼림으로서 청년인턴교류사업이 한 때 중단되어 당초 목표량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2. NEAR-러시아 프riba국립대학교-한국 계명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 체결

8월 18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과 러시아 프riba국립대학교 및 계명대학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NEAR청년인턴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체결로 각 기관은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동 협력뿐만 아니라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3.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부 권지환 학생 파견

NEAR사무국에서는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외국어문학부 러시아어문학에 재학중인 4학년 권지환 학생을 2015년 9월 러시아 프riba국립대학교에 한국어 교사 인턴으로 파견하였다.



One Northeast Asia, NEAR leading co-pr

rkshop 2015

2015 행사일정

Event Schedule of Member Regions in 2015

무자 워크숍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효고현(일)	효고 안전의 날	1.17	효고현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러)	건축과 건축술 엑스포	1.20~23	크라스노야르스크시
제주특별자치도(한)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	2.4~6	제주도 일원
효고현(일)	효고현립대학 재해감소, 부흥 국제포럼	2.6~8	효고현 고베시
교토부(일)	KYOTO 지구환경의 전당 시상식 및 교토환경 문화학술포럼	2.7	일본국립 교토국제회관
부라티야공화국(러)	국제식음료, 생산원료 박람회 '프로드엑스포'	2.9~13	부라티야공화국
사하공화국(러)	건축과 건축술, 북방기술 2015 박람회	2.25~27	사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러)	제12회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	2.26~28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제주특별자치도(한)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3.6~15	제주도 일원
효고현(일)	NEAR 방재분과위원회	3.9~12	효고현 고베시
크라스노야르스크시 변경주(러)	의료포럼 '에니세이 메디컬'	3.10~12	크라스노야르스크시
대구광역시(한)	2015 대국국제섬유박람회	3.11~13	대구 EXCO
니이가타현(일)	니이가타 사케노진	3.14~15	니이가타시
돗토리현(일)	돗토리 마라톤 2015	3.15	돗토리시
이르쿠츠크(러)	바이칼투어 박람회	3.25~27	이르쿠츠크시
부산광역시(한)	제11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3.26~29	벡스코
대구광역시(한)	제1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4.1~3	대구EXCO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러)	시베리아 보석박람회	4.2~5	크라스노야르스크시
경상북도(한)	2015 제7차 세계 물 포럼	4.12~17	대구EXCO
부라티야 공화국(러)	부라티야 공화국 관광박람회 <2015 부라티야 관광. 휴식>	4.17~18	울란우데시
허난성(중)	제9회 중국(허난) 국제투자무역상담회	4.20~23	정저우컨벤션센터
토야마현(일)	토야마현 제조업 종합견본시 2015	4.23~25	토야마테크노홀 등
경상남도(한)	제8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4.30~5.3	창원시 CECO
부산광역시(한)	제2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5.8~18	부산시민회관
경상남도(한)	국제자동차정밀기기전	5.12~15	창원컨벤션센터
대구광역시(한)	제12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5.13~15	대구 EXCO
광주광역시(한)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	5.15~18	김대중 컨벤션센터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인천광역시(한국)	2015 세계교육포럼	5.19~22	인천송도 컨벤시아
교토부(일본)	KYOTO SMART CITY EXPO 국제심포지엄	5.20	일본 국립 교토국제회관
제주특별자치도(한)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5.20~22	한국 제주도 일원
NEAR사무국	NEAR 실무자워크숍	5.20~22	한국 경상북도 일원
연해변경주(러)	연해변경주 관광과 휴양주간	5.21~23	블라디보스톡시
부라티야 공화국(러)	제6회 국제안보문제고위대표회의 전시회	6.23~26	울란우데시
하카시아공화국(러)	제4회 국제역사문화포럼 'Siber-il'	7.1~3	아바칸시
투브아이막(몽)	동북아 회원단체 여성리더포럼	7.1~31	조웅머드시
알타이변경주(러)	국제 푸드 포럼	7.1~31	바를나울시
산둥성(중)	2015중국 국제포도주, 독주 품평대회 (VINALIES)	7.3~5	엔타이시 평라이
효고현(일)	제30차 우주기술 및 과학 국제심포지엄	7.4~10	효고현 고베시
전라북도(한)	제9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7.10~15	무주, 전주, 새만금 일원
마가단주(러)	국제 마가단 투자박람회	7.17~18	마가단시
아마구치현(일)	제23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7.28~8.8	아마구치시 아지스 키타라 해변
시마네현(일)	NEAR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7.31~8.5	시마네현 마쓰에시
사할린주(러)	제5회 사할린 국제 영화페스티벌 '세상의 끝'	8.21~28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경상북도(한)	2015 경주실크로드 대축전	8.21~10.18	경주시
경상북도(한)	NEAR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8.26~28	한국 경주시
제주특별자치도(한)	제3회 제주 크루즈포럼	8.28	제주도 일원
지린성(중)	동북아박람회	9.1~6	창춘시, 창춘국제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한)	제3회 부산국제물포럼	9.3~4	벡스코
효고현(일)	국제 프린티어 산업 견본시장 2015	9.3~4	효고현 고베시, 고베국제전시장
지린성(중)	한중일지방정부협력회의 및 경제무역 프로젝트 매칭	9.3~6	창춘시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러)	목재가공엑스포	9.8~11	크라스노야르스크시
돗토리현(일)	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오파크 네트워크 심포지엄	9.16~20	돗토리현, 효고현, 교토부
사할린주(러)	제3회 사할린 국제 군악대 페스티벌	9.16~21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산둥성(중)	제8회 중국(둥잉)국제 석유화학 장비 및 기술 전시회	9.17~19	둥잉시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옌스아이맥(몽)	Uvs 파트너십 2015 무역박람회	9.18~20	올랑검시
산둥성(중)	중국 취푸 공자문화 페스티벌	9.27~29	지닝시 취푸
부산광역시(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10.1~10	영화의 전당
경상북도(한)	세계군인체육대회	10.2~11	문경시
강원도(한)	제6차 세계산불총회	10.12~14	알펜시아
이르쿠츠크주(러)	NEAR 실무위원회	10.13~16	이르쿠츠크주
전라남도(한)	NEAR 농업분과위원회	10.22~23	전라남도
산둥성(중)	NEAR 해양어업분과위원회	10.28~30	웨이하이시
광주광역시(한)	2015 광주국제디자인총회	10.17~23	김대중 컨벤션 센터
부산광역시(한)	제70회 UN의 날 기념식	10.23	유엔기념공원
토아마현(일)	NEAR 환경분과위원회	11.11~12	토아마시
부산광역시(한)	제13회 국제수산물무역 EXPO	11.12~14	벡스코
서울특별시(한)	NEAR 국제포럼	11.19	서울 밀레니엄 호텔



대외협력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ing



일본 이즈모시의회 의원 포항시 방문 및 업무지원

2015년 1월 타타노 쓰요토 시마네현 이즈모시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이즈모시 의회 의원 7명과 이즈모상공회의소 3명이 경상북도 포항시를 방문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NEAR 일본파견공무원과 일본전문위원이 일본 이즈모시 방문단 일행과 동행하며 포항방문기간 중 통역과 안내를 지원했다.



국제기구 ICLEI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방문

2015년 1월 사무국 대표단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ICLEI 한국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홍보방안 협의와 조직 및 회비제 운영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한국지방정부학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타 국제기구 방문

2015년 2월 사무국 대표단은 일본 삿포로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홋카이도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지방정부 국제교류 확대방안"에 참석하여 국제교류 확대방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타 단체의 국제행사 벤치마킹 및 관련분야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대구·경북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 지원

2015년 4월 '제7차 세계물포럼'이 'Water for Our Future(미래를 위한 물)'라는 주제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이 사무국 소재지인 경상북도에서 개최되고 회원지역의 주요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함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공항영접, 중국대표 면담 주선, 통역 등의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의장단체 방문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전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대표단 일행은 NEAR 의장단체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공식 방문했다. 전재원 사무총장은 예로센코 세르게이 주지사와의 상견례 및 간담회를 통해 제10차 실무위원회를 비롯하여 NEAR의 당면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중국 산시성 한·중 우호상징탑 제막식 참석

2015년 5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중국 산시성에서 개최된 한·중우호상징탑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 제막식은 한국 경상북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 체결 후 한중 더 가까워진 양국간의 문화교류 활성화와 경제통상의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제막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리우친젠(婁勤儉) 산시성장,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강국 주시안 총영사, 불국사 성타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타 국제기구 방문

2015년 6월 사무국 일행은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실, UNESCAP 동북아 사무소 및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를 각각 방문하여, 타 국제기구의 회비제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및 NEAR 국제포럼 협조방안을 협의하였다.



동국대(경주캠퍼스) 방문 상호협력 논의

2015년 6월 전재원 사무총장 등 사무국 일행은 동국대(경주캠퍼스)를 방문, 이계영 총장 등을 면담하고 상호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앞으로 청년인턴 교류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교류사업, 청년 캠프 운영 등 국제 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 · 란저우시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2015년 7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포항시와 란저우시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저우 완산(周万山) 란저우시 부시장 일행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면담하고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두 도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유라시아 문화(친선) 특급행사 참가

전재원 사무총장은 2015년 7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에 참석하였다. 또한 전 사무총장은 이르쿠츠크 슬로보드치코프 제1부지사를 면담하고 이르쿠츠크주가 NEAR 의장단체로서 NEAR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돗토리현 에바라 관광교류국 참사관 면담

2015년 7월 전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일행은 돗토리현청을 방문하여 돗토리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전 사무총장은 NEAR행사에서 돗토리현만이 가진 매력인 '만화왕국'에 대한 소개 및 설명회를 가지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에바라 오사무(江原修) 참사관은 앞으로 NEAR행사에 적극 참가할 것을 밝혔다.



효고현 카나자와 부지사와 면담

2015년 7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효고현청을 방문하여 카나자와 부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효고현과 NEAR사무국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사무총장이 효고현을 직접 방문하였고, 효고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와 면담

2015년 7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시마네현 지사실에서 미조구치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전재원 사무총장은 시마네현이 NEAR 창립멤버이자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NEAR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회원단체와 간담회 개최

2015년 7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시마네현 직원회관에서 시마네현, 효고현, 토야마현, 돗토리현 관계자들과 회비제 도입 시 회비사용 용도, 회비미납회원 단체에 대한 조치계획, 현장 제8조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시행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NEAR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인 관광의 날 행사 참석

2015년 8월 경주 힐튼호텔에서 '중국인 경상북도 관광의 날' 기념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상북도 주낙영 부지사, 전재원 사무총장, 염봉란 주부산 중국총영사, 중국인 관광객,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업무 협약체결, 중국인 유학생의 경북 관광 체험기 발표, 태권도 및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상북도는 앞으로 매년 8월 8일을 중국인 관광의 날로 지정,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NEAR · 쓰이바국립대학교 · 계명대학교 업무협약식 체결

2015년 8월 NEAR와 쓰이바국립대학교 및 계명대학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체결로 각 기관은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동협력뿐만 아니라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충북 방문, 특강

2015년 8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회원단체인 충청북도의 초청으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중국 서부지역거점 '시안'과 충북의 진출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지린성 한중일지방정부협력회의 참석

2015년 8월 중국 지린성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전재원 사무총장 및 사무국 대표단 일행은 한중일지방정부협력회의의 참석을 위해 지린성 창춘을 방문했다. 전재원 사무총장은 장차오랑 지린성장 회견, 경상북도 - 지린성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식, 환영만찬 등에 참석하였다.



중국 랴오닝성 및 네이멍구자치구 방문

201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간 전재원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은 신규 회원유치를 위해 비회원단체인 중국 랴오닝성과 네이멍구자치구를 방문했다. 랴오닝성외사판공실 주임은 랴오닝성의 NEAR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산시성 부성장 면담

2015년 9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중국 산시성 부성장 일행을 면담하고 NEAR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산시성과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경상북도와와의 경제 및 문화 분야 교류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동북아도시포럼참석

2015년 9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울란바토르시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개최된 동북아도시포럼에 참석하였다. 동북아도시포럼은 도시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도시녹색성장문제, 전략, 녹색 생활 및 교육, 도시 청정 및 지속가능 에너지, 도시 교통수송체계, 공기오염실태 및 대책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울란바토르 부시장 면담

2015년 9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몽골 울란바토르부시장을 면담하였다. 부시장은 NEAR가 동북아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NEAR를 통해 다른 도시와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몽골 회원단체와 간담회 개최

2015년 9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몽골 회원단체와 만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사무총장은 몽골 회원단체의 NEAR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해 NEAR가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많으며 조만간 개최되는 실무위원회, NEAR국제포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르쿠츠크주지사 면담

이르쿠츠크주지사 면담 2015년 10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개최 실무위원회 참석계기에 레프첸코 세르게이 주지사를 면담하고 9월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 주지사에 새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인사를 보내고 NEAR의장으로서 앞으로 NEAR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협조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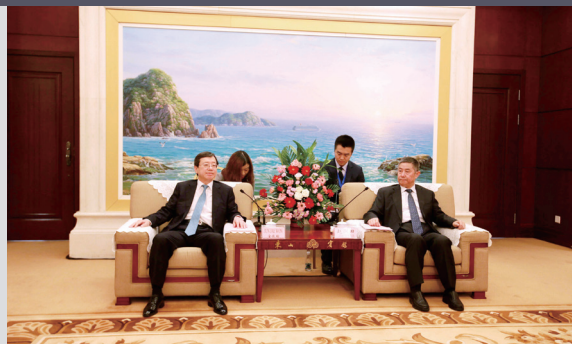
경북SW융합클러스터 거점센터 개소식 참석

2015년 10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포항테크노파크 내 “경북SW융합클러스터 거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클러스터 사업 경과 및 추진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의 환영사와 축사, 현판제막식 및 기념촬영이 진행되었다.



산동성 부성장 면담

2015년 10월 전재원 사무총장은 중국 웨이하이 개최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참석계기에 산동성 부성장을 면담하고 산동성의 NEAR에 대한 협조와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NEAR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NEAR, 동북아 국제협력상 수상

2015년 11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제8회 동북아국제협력상 수상자로 NEAR을 선정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거행, 전재원 NEAR사무총장을 통해 수여하였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NEAR가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로서 역내 지방정부간 활발한 교류와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을 이끌고 역내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NEAR, 연탄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

2015년 12월 연말을 맞이하여 NEAR 사무국의 전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10명은 경로당과 한 부모 가정,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NEAR 사무국 직원들은 12월 10일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소외 가구 3곳을 방문하여 연탄 800장을 전달하였고 이후 경로당 1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재원 사무총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을 나누며 훈훈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앞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기반강화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창립 8주년 기념

제8회 동북아국제협력상 시상식

일시 : 2015. 11. 10(화) 18:30~20:00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후원 :



참포도나무병원

worldKorean



1. NEAR 회비 운영규정(안) 제정

제10차 실무위원회에서 사무국이 회비제 도입을 위한 회비운영규정(안)을 제정하여 실무위원회에 상정, 2016년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비운영규정(안)은 아래와 같다.

[회비 운영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회비 관리의 투명성, 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원칙)

회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1) 사무총장은 회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투명,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2) 사무총장은 회원단체 요구 시 회비의 집행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회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 (회계에 관한 업무관장)

사무총장은 연합의 회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 (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 (1) 각 회원은 연회비로 미화 2,000달러를 분담한다.
- (2) 회비납부 기준 화폐는 미화달러로 하며, 매 회계연도 초에 납부한다.
단, 신규회원회비는 가입이 결정된 다음 연도부터 납부한다.
- (3)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총회에서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권리 제한)

회비 미납 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1) 회비납부 회원단체는 총회, 실무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2회 이상 회비미납 회원단체는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사용)

회비는 연합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며, 회비를 사용하는 사업선정 시에는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회비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5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가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확정)

- (1) 사무총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나 실무위원회에 개최 1개월 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2) 예산은 총회나 실무위원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회원단체 국, 과장급 중에서 국가별로 1명으로 구성하며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으로 선출된 총회부터 4년 뒤 신임 위원회 선출되는 총회까지로 한다. 위원을 재임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4)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비에 대한 집행)

- (1) 예산은 사무총장 책임 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회비 운영 규정(안)]

(2) 예산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예비비를 지출하고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나 실무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검사)

- (1)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회계검사결과를 당해 연도 개최되는 총회나 실무위원회에 개최 1개월 전에 회계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총회나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 (감사의 선출, 임기)

- (1) 감사는 회원단체 국가별로 국, 과장급 1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로 선출된 때부터 4년 뒤 신임 감사가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감사는 재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제안

제안사유

14개 코디네이터 회원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분과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 제10차 총회에서 있었던 사무국 제안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14개 단체 중 12개 단체가 결과를 제출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1) 충분한 예산의 사전확보
 - 행사개최 전년도에 예산마련을 위한 코디네이터단체의 노력
- 2) 행사의 내실화
 - 분과위원회 회원단체 또는 행사 참가 단체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참가 단체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
 - 잘 운영되고 있는 타 분과위원회에 대한 벤치마킹(분과위원회 담당자의 타 분과위원회 행사참여)
- 3) 참가 대상을 확대
 - 회원단체 이외에도 관련기관, 단체 참여 유도
- 4) 분과위원회 운영현황 평가의 정기적인 실시
 - 평가결과는 실무위원회, 총회에 보고하고 폐지, 통합, 이양 등 권고
- 5) 코디네이터 지위의 이양, 유사분과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권고 분과위원회
 - 지위이양 또는 폐지 (*최근 3년 이상 미 실시 분과위)
- 6) 분과위원회의 공동 개최
 - 공동개최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간 연대

3. NEAR NEWS 발간

NEAR NEWS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격월로 발간된다. 회원단체 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2005년에 창간되어 NEAR와 사무국 및 회원단체의 동정과 소식을 73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에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NEAR NEWS는 주로 특별기고, NEAR활동, 사무국소식, 회원자치단체 동정과 기획취재, 회원단체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7월에 NEAR NEWS 창간호를 발간한 후 매월 발간하여 오다가 현재 격월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한, 중, 일, 몽, 러, 영 총 6개 언어로 제작된다.

龍頭山公園

사무국 소개

The Secretariat



1.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 및 지속성이 결여되고, 연합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원단체의 문제점 제기로 2년 임기제로 의장단체가 사무국 운영을 병행했던 순회사무국 운영 방식이 2004년 중국 하이룽장성 제5차 총회에서 4년 임기제의 상설사무국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사무국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설사무국 유치를 제안하여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운영을 의결하였다. 이후 2012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는 임기제 상설사무국에서 진일보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는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사무국 조직 및 인력

사무국은 사무총장, 1차 2과(기획총무과, 국제협력과)로 구성¹⁾되어 있으며 총 17명의 상근 및 파견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인력구성은 총장, 경상북도 파견공무원이 5명, 전문위원 7명, 회원단체 파견공무원 4명(일, 중, 러, 몽)으로 구성된다.

3. 예산

운영비는 연간 US \$100만 (한화 11억 원/600만 위엔)/ 1억 2,000만엔 상당) 내외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상북도 (70%)와 포항시(30%)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5명) 3억 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4. 업무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작성

연합 발전을 위한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조정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운영지원 및 의결사항의 수행지원

지역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대외홍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2016년 1월 1일자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2부(기획홍보부, 국제협력부)로 구성

5.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전 재 원			사무처장 차 윤 호	
	기획총무과장 박 창 호			국제협력과장 권 남 원	
	박 지 응 (경상북도파견직원)			박성민 (국제협력팀장)	
	윤 혁 준 (경상북도파견직원)			이 혜 정 (중국전문위원)	
	조 진 (중국전문위원)			덩웨이 (중국파견직원)	
	이 명 은 (일본전문위원)			마쓰오 슈이치로 (일본파견직원)	
	르함 히식자르갈 (몽골전문위원)			바트소이르 온드라흐 (몽골파견직원)	
	최주화 (러시아전문위원)			그로야나 (러시아파견직원)	
	김경실 (영어전문위원)			김유진 (행정전문위원)	

부록

Appendix



NEAR Members

China (7)	• Heilongjiang Province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 Jilin Province	• Henan Province • Hubei Province	• Shandong province • Hunan Province
Japan (10)	• Niigata Prefecture • Hyogo Prefecture • Fukui Prefecture	• Toyama Prefecture • Kyoto Prefecture • Yamagata Prefecture	• Tottori Prefecture • Aomori Prefecture • Shimane Prefecture • Ishikawa Prefecture
South Korea (16)	• Gyeongsangbuk-do Province • Gyeonggi-do Province • Jeollabuk-do Province • Busan Metropolitan City • Daejeon Metropolitan City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Gyeongsangnam-do Province • Chungcheongbuk-do Province • Jeollanam-do Province • Daegu Metropolitan City • Gwangju Metropolitan City	• Gangwon-do Province • Chungcheongnam-do Provinc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Incheon Metropolitan City • Ulsan Metropolitan City
North Korea(2)	• Hamgyeongbuk-do Province • Rasun city		
Mongolia (22)	• Tuv Province • Dornod Province • Dorno-govi Province • Bolgan Province • Arkhangai Province • Govi-Altai Province • Bayan-Ulgii Province • Darkhan-Uul Province	• Selenge Province • Sukhbaatar Province • Dund-govi Province • Uvurkhangai Province • Khuvsgul Province • Khovd Province • Orkhon Province	• Ulaanbaatar City • Khentii Province • Umnu-govi Province • Bayankhongor Province • Zavkhan Province • Uvs Province • Govi-Sumber Province
Russia (16)	• Khabarovsk Territory • Irkutsk Region • Chita Region • Republic of Tyva • Republic of Khakassia	• Sakhalin Region • Republic of Sakha(Yakutia) • Primorski Territory • Altai Territory	• Amur Region • Toms Region • Magadan Region • Kamchatka Region • Republic of Buryatia • Krasnoyarsk Territory • Kemeromo Region

NEAR Observers

China(5)	• Shanxi Province • Tianjin City	• Shaanxi Province • Gansu Province	• Liaoning Province
Japan(1)	• Yamaguchi Prefecture		

Partners _ AER(Assembly of European Regions) Members

Albania (12)	• Berat • Fier • Lezhë	• Dibër • Gjirokastër • Shkodër	• Durrës • Korçë • Tiranë	• Elbasan • Kukës • Vlore
Armenia (24)	• Lori • Dubrovnik-Neretva • Koprivnica-Krizevci • Osijek-Baranya • Sibenik-Knin • Varazdin	• Tavuš • Grad-Zagreb • Krapina-Zagorje • Pozega-Slavonija • Sisak • Vukovar-Srijem	• Hrvatska (HR) • Istra • Licko-senjska • Primorje-Gorski • Moslavina • Zadar	• Brodsko-posavska • Karlovac • Medimurje • kotar • Split • Zagreb County
Austria (6)	• Burgenland • Salzburg	• Kärnten • Steiermark	• Niederösterreich	• Oberösterreich
Moldova (2)	• Cahul	• Soroca		
Nether-lands(4)	• Flevoland	• Gelderland	• Limburg	• Noord-Brabant
Norway (9)	• Akershus • Nordland • Vestfold	• Buskerud • Oppland	• Hedmark • Østfold	• Hordaland • Telemark
Poland (3)	• Woj.Dolnoslaskie	• Woj.Slaskie	• Woj.Wielkopolskie	
Portugal (2)	• Açores	• Madeira		
Republic of Macedonia (2)	• Eastern Region (Bregalnica)		• Pelagonia	
Romania (17)	• Alba • Bihor • Braşov • Covasna • Wien	• Arad • Bistriţa-Năsăud • Călăraşi • Dâmboviţa	• Argeş • Botoşani • Caraş-Severin • Tirol	• Bacău • Brăila • Cluj • Vorarlberg
Azerbaijan (2)	• Baku-Surakhani	• Shirvan		
Belgium (3)	• Bruxelles-Capitale	•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 Wallonie
Bosnia/Herzegovina (12)	• Bosna • Herce-Bosna • Sarajevo	• Podrinje • Hercegovina-Neretva • Tuzla	• Brcko • Posavina • Zapadnam Hercegovina	• Distrikt • Republika Srpska • Zenica-Doboj

Bulgaria (1)	• Ruse			
Cyprus (1)	• Union of Cyprus Municipalities			
Czech Republic (2)	• Královéhradeck'y	• Olomouc		
Denmark (2)	• Nordjylland	• Syddanmark		
Finland (8)	• Etelä-Pohjanmaa • Pirkanmaa	• Keski-Pohjanmaa • Pohjois-Karjala	• Keski-Suomi • Pohjois-Pohjanmaa	• Lappi • Satakunta
France (30)	• Alsace • Champagne-Ardenne • Gorj • Iași • Mureș • Sălaj • Teleorman • Vaslui	• Aquitaine • Corse • Harghita • Ilfov • Neamț • Satu • Timiș • Vrancea	• Auvergne • Dolj • Hunedoara • Maramureș • Olt • Mare • Tulcea	• Centre • Galați • Ialomița • Mehedinți • Prahova • Sibiu • Vâlcea
Russia (5)	• Ingushetia • Tatarstan	• Karelja	• Mordovija	• Samara
Serbia (1)	• Vojvodina			
Slovakia (2)	• Kosice	• Trnava		
Spain (3)	• Catalunya	• Comunitat Valenciana	• Región de Murcia	
Switzerland (20)	• Aargau • Fribourg • Franche-Comté • Languedoc-Roussillon • Picardie	• Basel-Landschaft • Genève • Guadeloupe • Limousin • Poitou-Charentes	• Basel-Stadt • Graubünden • Guyane • Martinique • Réunion (La)	• Bern • Jura • Ile-de-France • Midi-Pyrénées • Rhône-Alpes
Germany (2)	• Baden-Württemberg	• Hessen		
Georgia (7)	• Adjara • Kvemo Kartli	• Guria • Shida Kartli	• Imereti • Tbilisi	• Kakheti
Greece (3)	• Kentriki Makedonia	• Kriti	• Sterea Ellada	

Ireland (1)	• Donegal			
Italy (14)	• Abruzzo • Friuli Venezia Giulia • Toscana • Valle	• Basilicata • Lazio • Trentino-Alto Adige • d'Aosta	• Bolzano (Provincia) • Molise • Trento (Provincia)	• Campania • Sardegna • Umbria
Hungary (16)	• Bács-Kiskun • Neuchâtel • St. Gallen • Valais	• Baranya • Nidwalden • Thurgau • Vaud	• Békés • Obwalden • Ticino • Zürich	• Luzern • Schwyz • Uri • Zug
Sweden (14)	• Dalarna • Kronoberg • Sörmland • Västernorrland	• Gävleborg • Norrbotten • Uppsala • Västra Götaland	• Jämtland • Örebro • Värmland	• Jönköping • Östsam/Östergötland • Västerbotten
Turkey (9)	• Bursa • Kahramanmaras • Usak	• Denizli • Kırsehir	• Edirne • Kocaeli	• Istanbul • Samsun
Ukraine (8)	• Dnepropetrovsk • Kyjiv	• Donets'k • L'Viv	• Kherson • Odessa	• Kirovograd • Vinnytsia
United Kingdom (13)	• Hampshire • Győr-Moson-Sopron • Komárom-Esztergom • Tolna	• Borsod-Abaúj-Zemplén • Hajdú-Bihar • Pest	• Csongrád • Heves • Somogy	• Fejér • Jász-Nagykun-Szolnok • Szabolcs-Szatmár-Bere

Partners _ R-20(Regions of Climate Action) Members

Africa (8)	• Northern Region, Burkina Faso • Region Oriental, Morocco • Delta State, Nigeria • Dakar, Senegal	• Region des Haut Bassin, Burkina Faso • Region of Taza-Al Hoceima-Taounate, Morocco • Western Province, Rwanda • Matam, Senegal
Asia-Pacific (3)	• Gujarat State, India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South Korea	• Cebu, Phillipines
Europe (6)	• Istria, Croatia • Puglia, Italy • Alba County, Romania	• Ile de France, France • Azores, Portugal • Donetsk, Ukraine
North America (9)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 State of Campeche, Mexico • State of Sinaloa, Mexico • State of California, USA • State of Michigan, USA	• State of Baja California, Mexico • State of Chiapas, Mexico • State of Quintana Roo, Mexico • State of Connecticut, USA
South America (2)	• State of Acre, Brazil • Pichincha, Ecuador	

Partners _ R-20(Regions of Climate Action) Partner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4)	• Assembly of European Regions(AER) •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s(NEAR)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World Association of Regions, Metropolis
--	---



'96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회의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Conference '96
1996. 9. 12 경상북도



주최: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호: 경주 보문단지

회원지방자치단체

러시아



-  ① 부랴티아공화국
-  ② 사하(아쿠티아)공화국
-  ③ 투바공화국
-  ④ 알타이변경주
-  ⑤ 차바이칼변경주
-  ⑥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  ⑦ 연해변경주
-  ⑧ 하바롭스크변경주
-  ⑨ 아무르주
-  ⑩ 이르쿠츠크주
-  ⑪ 캄차카변경주
-  ⑫ 마가단주
-  ⑬ 사할린주
-  ⑭ 툴스쿠주
-  ⑮ 케메로보주
-  ⑯ 하카시아공화국

몽골



-  ① 울란바토르시
-  ② 아르항가이아이막
-  ③ 바양올기아이막
-  ④ 바양홍고라이아이막
-  ⑤ 불강아이막
-  ⑥ 고비알타이아이막
-  ⑦ 고비숨베르아이막
-  ⑧ 다르항오울아이막
-  ⑨ 도르노드아이막
-  ⑩ 도르노고비아아이막
-  ⑪ 돈드고비아아이막
-  ⑫ 자브항아이막
-  ⑬ 오르홍아이막
-  ⑭ 우브르항가이아이막
-  ⑮ 움느고비아아이막
-  ⑯ 수흐바타라이아이막
-  ⑰ 셀렝그아이막
-  ⑱ 투브아이막
-  ⑲ 읍스아이막
-  ⑳ 홉드아이막
-  ㉑ 행티아이막
-  ㉒ 홉스굴아이막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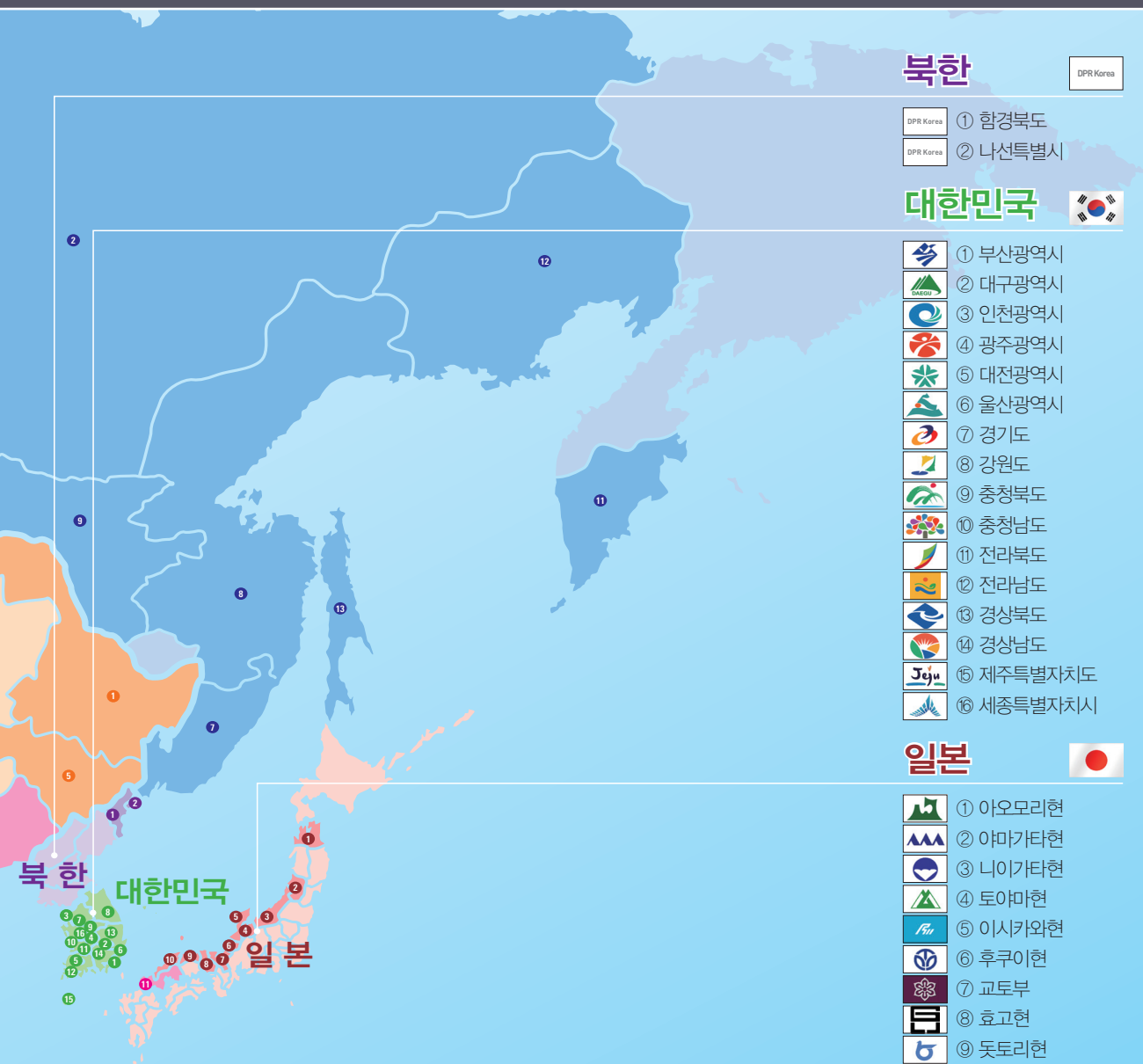


REGIONS OF
CLIMATE ACTION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정부기구(R20)

세계지도자들이 UN과 협력하여 설립한 기구로서 세계의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발전 프로젝트·정책·수법시례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gions20.org



북한

DPR Korea

- ① 함경북도
- ② 나선특별시

대한민국



- ① 부산광역시
- ② 대구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광주광역시
- ⑤ 대전광역시
- ⑥ 울산광역시
- ⑦ 경기도
- ⑧ 강원도
- ⑨ 충청북도
- ⑩ 충청남도
- ⑪ 전라북도
- ⑫ 전라남도
- ⑬ 경상북도
- ⑭ 경상남도
- ⑮ 제주특별자치도
- ⑯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 ① 아오모리현
- ② 야마가타현
- ③ 니이가타현
- ④ 토야마현
- ⑤ 이시카와현
- ⑥ 후쿠이현
- ⑦ 교토부
- ⑧ 효고현
- ⑨ 돗토리현
- ⑩ 시마네현
- ⑪ 야마구치현 *

중국



- ① 헤이룽장성
- ② 허난성
- ③ 후베이성
- ④ 후난성
- ⑤ 지린성
- ⑥ 닝샤회족자치구
- ⑦ 산둥성
- ⑧ 라오닝성 *
- ⑨ 산시성 (陕西) *
- ⑩ 산시성 (山西) *
- ⑪ 톈진시 *
- ⑫ 간쑤성 *

* 읍저버단체



유럽지방정부협의회(AER)

유럽자치단체의 공동번영 및 보안성 추구를 위해 1985년 설립된 기구로써 현재 35개국 230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프랑스 알사스 주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www.aer.eu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러시아 국가정책연구기관이자 국립대학원이며 주로 동양학, 북아프리카 서부해안부터 태평양 섬 지역을 연구하며 9개의 학술센터와 11개의 학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www.ivran.ru

